

# 중동 위기 등에 '반대매매' 275억... 3高 겹친 빛투족 '덜덜'

신용용자 올해 첫 감소세 전환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 증가  
증권사 저금리·빛투 자극 지적

중동지역 정세 불안, 금리인하 우려 등의 악재가 지속되면서 반대매매 공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신용공여잔고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18일 이틀간 275억원의 반대매매가 쏟아졌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신용용자 잔고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5일 18조 5457억원이었던 신용용자잔고는 이달 초 19조5000억원까지 오르면서 약 한 달 사이 1조 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22일 기준으로는 19조325억원까지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빛투족'의 자발적인 감소라기 보다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여파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난달 신용거래용자가 급증하자 '빛투(빛내서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유투이미지

변동성에 따른 반대매매를 유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란 증권사 고객이 신용용자 등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빌린 돈을 약정 기간 내 변제하지 못했을 때, 투자자 허락 유무와 관계없이 주식이 처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코스피가 주저앉았던 16일 이후 반대매매가 쏟아졌다. 지난 17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172억원이었으며, 18일에도 10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반대매매 체결액이 100억원을 넘긴 날은 1월 18일(102억원)과 2월 28일(115억원)뿐이다. 직전이었다던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의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도 56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연속 100억원을 상회하는 매물이 출회했다는 것은,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빛투족들의 주식이 강제 청산당했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신용용자잔고가 19조원대로 불어난 시점에서 고금리·고환율·고유가, '3高'가 겹친 만큼 반대매매 우려는 상존하게 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중동전쟁)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물론 시장 참여자들은 이란 추가 대규모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신용용자이자율을 낮추는 등 빛투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용용자 7일물 이자율을 0%로 지정했으며, 이외에도 교보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신용거래 해택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코스콤

### 'D-테스트베드' 참여 기업 모집

코스콤이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우수한 핀테크 아이디어가 양질의 비즈니스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코스콤에서 수행을 맡고 있다.

D-테스트베드 참여자로 선정 시 개인·팀·기업 등 누구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 인프라가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원격 테스트 환경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에서 사업연계형, 과제도전형, 자유제안형 등 각자 적합한 유형에 맞춰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된 참여자들은 오는 5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14주에 걸쳐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상·하반기 참여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증권사, 부동산 PF 손실 최소 1.4조... 2분기 실적 '우려'

미래에셋 등 5개 증권사 1분기 흑자  
당기순이익 9098억 전분기 보다 ↑  
자본완충력 통해 대응해야 할 것

증권사들이 거래대금 증가로 1분기 실적 방어에 성공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인해 2분기 실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2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한국투자(한국금융지주)·NH투자·삼성·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2023억원으로 전분기(-2056억원) 보다 크게 개선돼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9098억원으로 전분기(-2547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호실적을 거두게 된 데는 거래대금 증가로 인한 위탁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추진, 해외 주요지



여의도 증권사.

/손진영기자 son@

수의 급등 등이 겹치면서 국내외 거래가 대폭 증가하면서 관련 수입이 크게 좋아졌다. 1분기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16조5000억원)에 비해 약 30% 증가했으며, 해외주식 거래대금도 123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8.5% 늘었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

시 거래대금과 해외 주식 거래대금이 견조함에 따라 위탁매매 수수료 등 관련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증권사들의 1분기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입은 전분기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예상 부동산 PF 손실(충당금)은 최소 1조4000억 원에서 최대 7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신용평가는 26개 증권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 9사와 그 외 중소형사 17개사)가 지난해 말까지 손실에 대비해 적립해 둔 충당금을 고려할 때 예상 추가 손실 규모는 1조4000억~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해외 부동산 등 대체 투자와 관련한 추가 손실도 제기됐다.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3조원인데 대형사가 11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 유럽 등 업무시설(오피스) 비중이 약 50%로 가장 많았다. 한신평은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규모는 국내 부동산 PF보다 작지만, 추가 손실 부담은 여전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충당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등이 업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수익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각 증권사는 자본완충력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1분기 증권결제대금 일평균 23.1조... 전년 대비 8% 감소

직전 분기 비교시 6.4% 증가 금액

한국예탁결제원은 1분기 주식과 채권을 합친 증권결제대금이 일평균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6.4% 증가한 금액이다.

주식결제대금은 2조1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6.7%, 1년 전 대비 34.3% 증가했다. 채권결제대금은 21조1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4.8% 증가했으

나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10.5% 감소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장내 주식시장 하루 평균 결제대금은 89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1%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24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8.2% 늘었고, 차감률은 96.4%로 전 분기 대비 0.2%포인트(p)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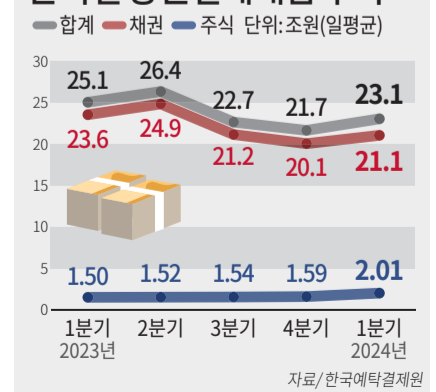
1분기 장내 채권시장 일평균 결제대금은 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1.8%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7조3600

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4% 늘어난 반면 차감률은 64.6%로 직전 분기 대비 3.9%p 감소했다.

기관투자자의 일평균 결제대금은 1조12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1.5% 늘었다. 거래대금은 12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5% 증가했고, 차감률은 90.8%로 전 분기에 비해 0.5%p 줄었다.

1분기 채권기관투자자결제 거래대금 역시 18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8% 증가했다. 거래대금과 차감률

### 분기별 증권결제대금 추이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은 각각 27조3000억원, 32.2%로 전 분기보다 각각 5.8%, 1.9%p 늘었다.

/원관희 기자 wkh@

## 삼성증권

### 스타트업 성장위한 'VC IR데이' 개최

삼성증권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벤처투자, 울산·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삼성증권 부산기업금융지점에서 VC IR데이(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VC IR데이는 작년 이어 2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지역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작년 VC IR데이에 참여한 기업 중 에듀테크 기업인 산타가 엑셀트리벤처스, 경남벤처투자, 삼성증권 등에서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이 많은 벤처캐피탈, 기관투자자, 법인, 삼성증권 고객 등이 이번 IR 행사에 참여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은 자금 유치를 통해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도 스타트업 투자단계에 맞춰 씨드머니 혹은 시리즈 A라운드 이상 규모의 투자를 받았던 스타트업 대상이 참여해 IR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포스코어(철강 부산물 활용한 자성분말 및 이를 활용한 고효율 모터코어 제조사업) ▲에이엔제이아이언스(전함성 플랫폼 기술보유, 난치성 감염병 치료제 개발) 등 13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원관희 기자